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56-61,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5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Jimmy Blanton의 연주기법과 스타일에 관한 연구

윤두영[1*], 조태선[1]
[1]청운대학교 산업대학 실용음악과

Analysis Of the Bass Performance Of Jimmy Blanton

Du-Young Yoon[1*], Tae-Seon Cho[1]
[1]Division Of Broadcasting & Arts,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재즈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모던한 베이스 연주 스타일을 선보였던 베이스 연주인 Jimmy Blanton의 연주기법과 스타일에 관한 논문이다. 콘트라베이스가 사용된 이래 Jimmy Blanton 이전 시대의 베이스의 연주 특징이라고 한다면 2비트 또는 4비트의 단순한 라인들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인 리듬과 근음(Root Note)을 바탕으로 연결함으로써 화음을 보조해주는 역할 이외에 솔로나 멜로디적인 라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베이스연주 스타일의 개념을 바꾸어놓은 인물이 바로 Jimmy Blanton 이다. 그는 New Orleans Jazz 이후 가장처음으로 모던한 베이스의 연주스타일과 기법을 선보인 연주자이다. 단순한 Two Beat 스타일의 반주에서 4Beat를 바탕으로 Triplet리듬과 같은 다양한 리듬적 프레이즈를 반주에 도입하였으며 Horn과 같은 솔로 악기의 연주 스타일을 베이스로도 연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Ray Brown, Paul Chambers와 같은 거물급의 재즈연주인 들에게서도 그의 연주스타일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그가 연주했던 곡들 중 Cotton Tail과 MR.JB Blues를 중심으로 반주와 솔로 기법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전형적인 Root중심의 연주에서 벗어나 스케일을 사용해 Target Note를 향해 연주해가는 기법, 코드톤과 아르페지오를 이용한 프레이즈, 멜로디적인 솔로 연주 스타일, 질문과 대답형식 등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베이스 연주 기법들이 Jimmy Blanton을 통해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is the Study of the Bass performance of the Jimmy Blanton who is first pioneer of Jazz Style Bass playing. Since the contrabass is using in jazz Performances Before jimmy Blanton, playing technique was mainly played repeatedly with simply two or four Beat with Root or 5th degree of Chord Tone. In Other words, there was only root based Note along with Harmony which doesn't have Bass Solos or Melodic phrase Appeared in Bass playing. Jimmy Blanton Was the First Bass Player who changes This Traditional Concept of Jazz bass playing after New Orleans Jazz era. He was introduced variety of accompaniment Style with Various rhythmic phrase and Bass Soloing like a horn Player. We could know that His Style Continues to Such as Ray Brown, Paul chambers who has a big Name after Jimmy Blanton. I analyzed accompaniment Style and solo techniques Of Jimmy Blanton with the Song “Cotton tail and MR.JB Blues” Which He Performed with Duke Ellington. I learned a lot while I’m analyzing his Performing Style from Jimmy Blanton, such as Target Note playing, using Chord Tones and Arpeggios, Melodic Solo Style, Jazz Style Bowing Technique, Question and Answer Phrasing etc. I could notice That He Was the true Pioneer of the First Bass player In the Early Jazz days.

Key Words : Jazz Style Bass playing, jimmy Blanton, Bass, Solo, Bow, Playing Techniqu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클래식음악 이후 재즈에 콘트라베이스가 사용된 이래 시대적인 음악 스타일에 따라 베이스의 역할과 연주기법들에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있어왔다. 초기재즈 밴드 리듬섹션의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던 튜바와 트럼본을 대신해 콘트라베이스가 사용되었으며 1920년대 뉴올리

*Corresponding Author : Du-Young Yoon(Chungwoon Univ.)
Tel: +82-10-3157-1303 email: contrayoon@naver.com
Received July 23, 2014 Revised January 6, 2015 Accepted January 8, 2015

언스 재즈에서부터 현대 모던재즈까지 콘트라베이스는 재즈역사에 없어선 안 되는 중심적인 악기로 역할을 하고 있다. 베이스가 단순히 리듬과 화성의 흐름을 나타내는 연주에서 시작해 스윙과 비밥, 아방가르드 시대를 거쳐 현대 연주기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창조적인 연주인들의 노력과 도전의 결과로써 현재의 다양한 연주형태로 나타난 결과물일 것이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역학을 이끌어낸 역사적 베이스 연주자중 가장 처음으로 모던한 연주기법을 선보인 지미 블랜튼의 연주 스타일과 기법들에 관해 고찰해보고 그의 선구자적인 연주방식들에 대해 알아본 연구이다. 그가 연주한 많은 곡들 중 듀크 엘링튼과 함께한 시기에 연주한 Cotton Tail과 M.R JB Blues를 중심으로 각각 반주 스타일과 솔로스타일을 분석해보았다.

1.2 Jimmy Blanton

Blanton은 미국의 테네시의 Chattanooga에서 태어나 음악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피아니스트였던 그의 어머니가 이끌던 밴드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였으며 Tennessee State College 에서 수학할 당시 베이스로 전향한다. 1939년 20살이었던 그는 ST. Louis에 위치한 Hotel에서 정규적으로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 지역에서 연주가 있었던 Duke Ellington이 우연히 Blanton의 연주를 듣게 된다. Ellington은 나이에 비해 놀랄 정도로 뛰어난 Blanton의 테크닉과 재능에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 Duke Ellington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자신의 Orchestra에 Blanton을 영입하였고 때때로 Blanton의 베이스파트를 관악파트처럼 편곡하여 베이스라는 악기가 앙상블에서 최대한 부각 될 수 있는 곡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1940년에 Ellington과 Duo로 녹음된 <Pitter Panther>, <Mr. J.B. Blues>등 몇 개의 듀엣 녹음에선 이전의 연주인들 에게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테크닉과 음악적 상상력을 느낄 수 있으며 Ellington과의 Interplay는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가 연주한 음악에서도 들을 수 있듯이 동시대의 다른 베이스 주자들보다 더 넓은 음역 대에서 연주할 수 있었으며 그의 베이스 톤은 둥글고 명료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가 연주로 표현한 음들의 Intonation 는 정확하였으며 화성적인 대응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Bow(활)을 사용하여 솔로를 하거나 반주를 하는 주법도 그의 녹음에서 들을 수 있다. Blanton은 1960년대 또 다른 베이스연주 스타일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인물인 Scotte Lafaro가 나타나기 이전의 많은 베이스 연주인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준 인물이라 하겠다. Blanton은 25세의 나이로 짧게 인생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비춰볼 때 개척정신이 강하고 창조적이며 선구자적인 연주인이라 판단한다[2,3].

2. Jimmy Blanton의 연주 스타일

Blanton의 사운드는 둥글고 풍부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그의 연주에 주목할 점은 Pizzicato로 연주할 때 Long-Tone으로 연주하는 주법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연주한 덕택으로 활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었으며 Duke Ellington과 연주한 앨범들에서 그의 놀라운 Bowing실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Duke 와 듀엣으로 녹음한 곡 중 Body and Soul에서는 Jimmy Blanton이 테마의 멜로디를 베이스로 변주해 가며 연주가 전개 되간다[4]. 재즈역사에 콘트라베이스가 사용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20대초반밖에 안된 젊은 베이스주자가 연주했다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연주를 이곡에서 느낄 수 있다.

2.1 연주곡 분석:Cotton Tail

다음[Fig. 1]은 Duke Ellington이작곡한 Cotton Tail의 코드진행이다. 이곡은 AABA 형식의Rhythm Change곡이며 Rhythm의 형식의 코드 Change는 1930년대 사용되기 시작해 40년대와 50년대 Bebop 많은 뮤지션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George Gershwin의 “I Got Rhythm”과 같은 코드진행 위에 멜로디만 다르게 작곡된 형태로 Blues와 같이 재즈 연주인들이 많이 연주하는 Standard 진행이기도하다. Rhythm Change 의 기본 코드진행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Rhythm Change곡은 Bb Key로 쓰여진곡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Blues와 같이 기본적인 단순한 코드진행의 형태를 다양한 화성적 대입에 의해 변형하고 발전시켜 다양한 코드진행 형태로 리하모나이즈 되어 재 편곡되기도 한다[5].

Rhythm Change 코드진행:

A

I7 VI7	IIm7 V7	I7 VIm7	IIIm7 V7
I I7	IV IVm7	I VIm7	IIm7 V7

A'

I7 VI7	IIm7 V7	I7 VIm7	IIIm7 V7
I I7	IV IVm7	I V7	I (VII7)

B

III7		VI7	
II7		V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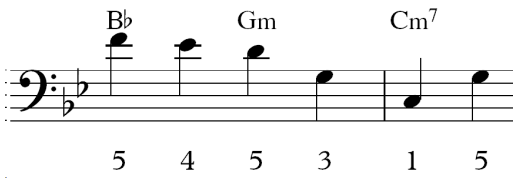
A

I7 VI7	IIm7 V7	I7 VIm7	IIIm7 V7
I I7	IV IVm7	I VIm7	IIm7 V7

[Fig. 1] Rhythm Change Chords Progression

2.2 Cotton Tail의 베이스라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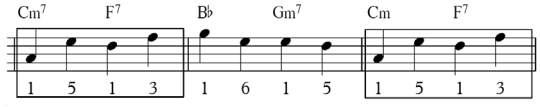
재즈가 발전해감에 따라 시대적으로 그에 따른 반주 형태들도 변해왔다. 재즈와 함께 다양한 나라의 전통음악과 리듬들이 결합되고 변형되어 재즈에 적용되고 있듯이 재즈에 사용되는 반주 형식들도 단순히 4비트에 기초한 연주형태를 넘어 다양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다양화 되었을지라도 재즈 베이스의 기본적인 반주 스타일은 Walking 베이스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Walking 베이스를 연주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노래에 주어진 코드진행의 근음(Root)을 중심으로 코드톤과 코드에 연관된 스케일 음들을 연결해감으로써 화성의 흐름을 제시해 주게 된다.Blanton 이전의 베이스연주자들의 진행들은 Two Beat를 중심으로 한 연주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또한 루트음과 5도음을 벗어나 연주되는 경우는 듣기 힘들다. 이러한 단순한 연주 스타일을 벗어나 블랜튼은 4 Beat를 기본으로 다양한 리듬을 재즈연주에 실험하고 적용시킨 인물이라 하겠다. 그의 연주에서 반주와 솔로적인 부분에 시대를 앞선 다양한 스케일과 리듬들이 적용된 연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멜로디적인 면들과 활을 이용한 테크닉적인 연주들도 많이 들을 수 있다. 우선 그의 반주적인 스타일에 대해 Duke와 연주한 Cotton Tail이라는 곡을 통해 알아보면 이곡의 A파트의 첫 번째 마디[Fig. 2]에서 Root로 시작된 음이 아닌 Bb의 5도 음으로 시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갖는 근음이 아니 도미넌트에 해당하는 5도 음으로 시작함으로써 긴장감을 유도하고 있다.



[Fig. 2] 1st Measure of Cotton Tail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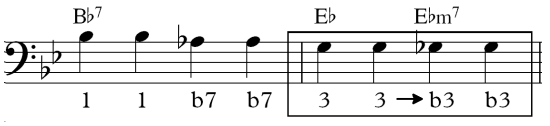
비밥 곡의 특징으로서 복잡하게 계산된 듯한 코드진행과 빠른 템포로 연주되는 곡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빠른 템포의 곡들을 연주 할 때는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연주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코드 음의 선택과 비슷한 형태의 베이스라인 들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곡에서도 그러한 특징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다음[Fig. 3]은 테마 2-4마디의 악보이다. 2번째 마디와 4번째 마디에서 볼 수 있듯이 1513의 코드 톤을 사용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무래도 빠른 템포 에서 곡을 연주할 땐 다채로운 음들을 사용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화음구조인 3화음의 코드 톤을 중심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기본 패턴과 코드 스케일을 중심으로 연결해가고 있다.



[Fig. 3] 2nd to 4th measures of Cotton Tail Theme

아래[Fig. 4]의 베이스라인은 테마의 5번째 마디로써 같은 음을 반복함으로써 단순화 시켜 연주 했는데 뒤에 똑같은 라인이 스케일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주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또한 6번째 마디의 진행인 Eb에서 Ebm로 변화하는 코드에 3도에서 b3도를 사용해 코드가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바뀌는 느낌을 강조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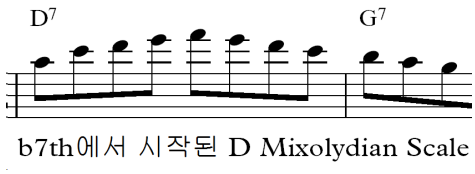


[Fig. 4] 6th Measure Of Cotton Tail Theme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인 Cotton Tail의 베이스 라인을 보면 근음을 중심으로 한 스케일 패턴과 아르페지오를 사용해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코드톤과 스켈일을 사용한 베이스라인 진행 형태는 지금도 가장 일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주 형식이다. Blanton은 이러한 기본적인 연주 방식을 넘어 다양한 리듬적인 요소들과 접목해 연주하였다. 또한 이 곡에서 Blanton은 스윙으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Straight에 가까운 느낌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Sustain이긴 음으로 연주하고 있다. Blanton은 앰프의 사용 없이 Gut String이 장착된 베이스로 녹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녹음된 음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명료하게 앙상블의 사운드를 받쳐 주고 있다. 같은 반복적인 베이스라인 진행 형태는 근음을 중심으로 한 스케일 패턴과 아르페지오를 사용해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단순한 방법으로 여겨지겠지만 이 당시엔 상당히 진보한 형태의 연주방식 이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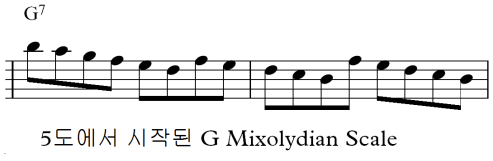
2.2 Solo Style 분석: Mr.J.B Blues

이곡은 곡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Duke Ellington이 Jimmy Blanton을 위해 쓴 곡으로 듀엣으로 녹음한곡이다. Jimmy Blanton 이전에 재즈앨범에서 베이스의 솔로적인 부분이 강조된 앨범들은 찾아 볼 수 없는데 당시 최고의 빅밴드를 이끌었던 Duke Ellington이 얼마나 Jimmy Blanton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곡은 블루스 진행의 듀엣 곡으로 재즈의 연주 형식중 하나인 질문과 대답(Question And Answer) 형식으로 멜로디가 전개된다. 이곡의 테마 처음부터 피아노가 코드가 가미된 반복적인 짧은 멜로디를 치면 2소절형식으로 구성된 베이스라인으로 그에 대답하는 형식의 곡이다. 전반적으로 이곡에선 베이스가 솔로를 하고 있으며 솔로의 중간에도 질문과 대답의 연주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피아노가 반주를 하고 베이스가 주가 되는 베이스를 위한 연주곡이다. 우선 Blanton이 활로 솔로하기 전 코러스 부분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솔로 코러스의 4번째 마디[Fig. 5]의 프레이즈에선 단순히 Root로 시작되는 프레이즈가아니라 b7th 음에서 시작된 D Mixolydian 스케일을 순차적으로 상행시켜 하행하는 형태의 프레이즈인데 전반적인 솔로분분에서 이러한 프레이즈를 많이 볼 수 있다[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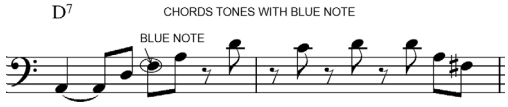
[Fig. 5] 4th measure of last Chorus Part Of MR. J.B. Blues Before Solo With Bow

그 다음[Fig. 6]으로 연결되는 5번째 마디도 G7코드의 5도 음에서 프레이즈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Jimmy Blanton이 이미 다양한 즉흥연주기법들을 습득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다. 대체적으로 8분 음표를 기반으로 스케일을 사용한 한 프레이즈와 코드 톤 아르페지오가 사용되었다.



[Fig. 6] 5th measure of last Chorus Part Of MR. J.B. Blues Before Solo With B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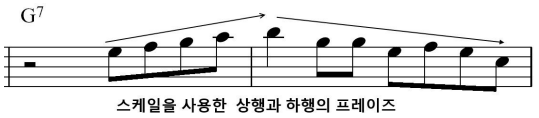
7번째와 8번째[Fig. 7] 마디의 D7코드에서는 코드 아르페지오에 간간히 Blue Note를 사용함으로써 블루지한 느낌의 표현들도 느낄 수 있다.



[Fig. 7] 7th measure to 8th Measure of last Chrous Part Of MR. J.B. Blues Before Solo With B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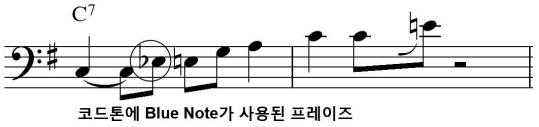
활로 솔로가 시작되는 첫 번째 블루스 진행 부분에서는 이 당시에 연주 했다라고 믿기 어려울정도로 고난위도의 솔로 테크닉을 들을 수 있는데 하이포지션의 연주 또한 인상적이다.

활로 솔로가 시작되는 솔로코러스 세 번째 마디[Fig.8]에선 Root에서 시작되는 G Mixolydian 스케일로 순차적으로 상행해 시켜 네 번째 마디에는 하행해 다섯 번째 마디의 C7코드의 Root음으로 연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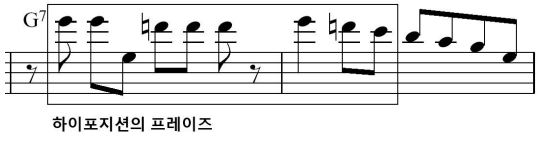
[Fig. 8] 3rd measure of 1st Solo Chorus Of Solo With Bow Part

5-6 번째 마디[Fig. 9] 의 프레이즈를 보면 C7코드의 코드 톤에 Blue Note인 Eb음을 추가시켜 블루지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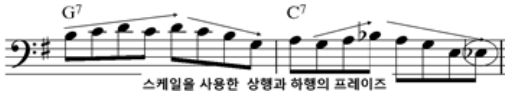
[Fig. 9] 5th measure to 6th of 1st Solo Chorus Of Solo With Bow Part

7-8번째 마디[Fig. 10]에선 G Mixolydian 스케일을 하이 포지션에서 연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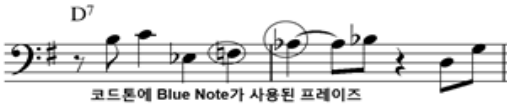
[Fig. 10] 7th measure to 8th of 1st Solo Chorus Of Solo With Bow Part

활로 솔로한 두 번째 코러스 부분의 1-2 마디[Fig. 11]의 프레이즈에선 각각 Mixolydian Scale을 상용해 상행과 하행을 반복해 처리되었으며 두 번째 마디에선 Eb Blue Note가 다음마디의 코드톤인 D음으로 연결돼 블루지한 느낌이 가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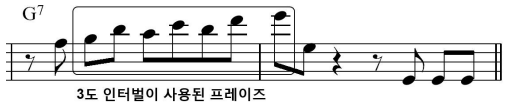
[Fig. 11] 1st & 2nd Measure of 2nd Solo Chorus Of Solo With Bow Part

아홉 번째 마디[Fig. 12] D7 코드에선 코드톤에 블루노트를 추가해 리듬적인 프레이즈로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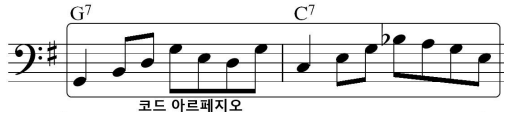
[Fig. 12] 9th Measure of 2nd Solo Chorus Of Solo With Bow Part

열한 번째 마디[Fig. 13]에선 G Mixolydian Scale를 3도 인터벌로 상행 진행해 다음마디에서 Root로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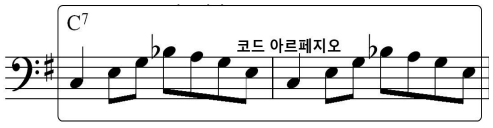


[Fig. 13] 11th Measure of 2nd Solo Chorus Of Solo With Bow Part

이곡의 마지막 솔로코러스 부분에서는 다음[Fig. 14], [Fig. 15]와같이 코드 아르페지오를 이용한 부분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Fig. 14] Solo Phrase With Chord Arpeggio



[Fig. 15] C7 Chord Arpeggio With Descending Scale note

3. 결론

이 논문을 통해 베이스라는 악기가 재즈연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주 기법들이 이미 Blanton을 통해 완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Blanton은 이전 전통적인 방식의 연주 스타일에서 벗어

나 음을 길게 지속시켜 연주하는 법을 발전시켰다. 둘째 전반적으로 근음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연주에서 벗어나 스케일을 사용한 패턴적인 연주와 코드 아르페지오를 사용한 프레이즈, 질문과 대답 형식의 멜로디적인 솔로연주, Blue Note를 사용한 리듬적인 프레이즈등 다양한 기법 등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총괄적인 연주기법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을 사용해 솔로를 한다든지 하이포지션에서의 연주는 동시대의 연주인들에게서 보기 힘든 고난위도의 연주테크닉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Blanton의 베이스 연주 스타일은 이후의 여러 베이스 주자들이 재즈라는 장르의 음악에서 베이스가 어떻게 연주되어야 하고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었으며 재즈베이스 연주 스타일의 개념을 바꾸어 놓은 인물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1] Dirk Sutro “Dummy For Jazz”, IDG Books Worldwid., 1998

[2] Dave Hunt “Jazz Bass Artists Of 1950s.”, Cranston publication, 2010

[3] Marc C.Gridley “Jazz Style“ Prentice Hall, 1994.pp.357-360, 2009.

[4] Todd Coolman “The Bass Tradition” Jamey Aebersold Jazz,

[5] Mike Downers “The Jazz Bass Line Book”, Advanced Music

[6] Mooter Greg - Bass player’s Hand Book.” Berklee Press, 2011

[7] John Goldsby “The Jazz Bass Book ”Backbeat Books, 2002.

[8] D.Y. Yoon “Jazz Style Of Bass Performance Technique” Master theses, University of Chung Woon, 2014.

윤 두 영(Du-Young Yoon) [정회원]

- 2004년 8월 : 네덜란드 Utrecht Conservatory Jazz Department (Art and Music Education 학사)
- 2014년 2월 : 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음악학석사)
- 1995년 3월 ~ 현재 : 콘트라 & 일렉베이스 전문 연주인 및 작편곡가
- 2012년 2월 ~ 현재 : Jazz Band "Frituday" Band Leader
- 2014년 12월 23 ~ 2015년 1월 : 인도네시아 남부 Sulawesi주 초청 연주 (Frituday Jazz Band)
- 2009년 3월 ~ 현재 : 수원과학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외래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산업대학 인천캠퍼스 실용음악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공연예술, 음악교육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1983년 10월 : MBC대학가요제 금상 수상
- 1988년 3월 : Solo 1집앨범 발표
- 1995년 12월 : 뮤지컬 왕과나 음악감독(서울 예술의전당공연)
- 2002년 4월 : TJB 음악토크쇼 음악이 머무는밤 MC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싱어송라이터